

P-X, 얼마까지 오르면 멈출까?

수입업협회, 1월 원자재 가격 최고치 ... 30개 품목 중 25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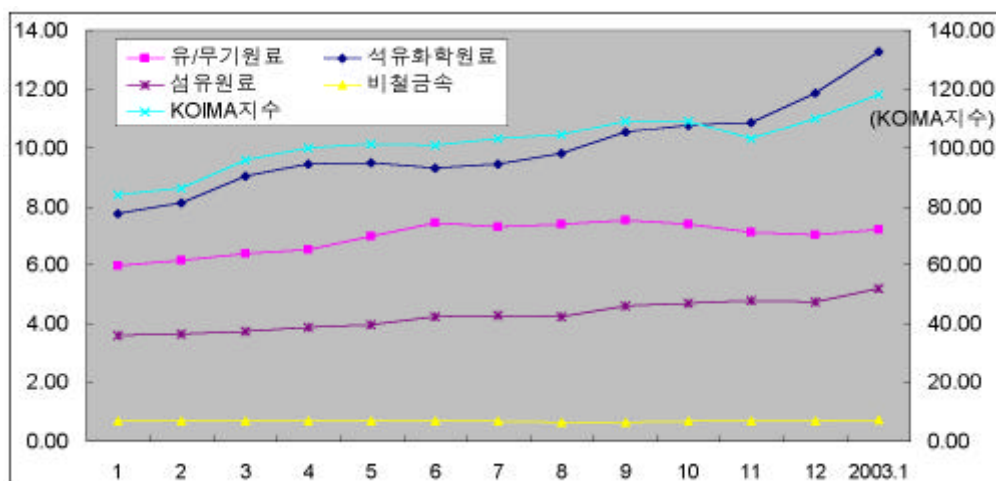
국제 유가와 석유화학제품 가격 등이 크게 오르면서 2003년 1월 원자재 수입가격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수입업협회가 발표한 수입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르면, 2003년 1월 협회 원자재 수입가격 지수인 코이마(KOIMA) 지수는 2002년 12월보다 8.12p 상승한 118.22로 1996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이마 지수는 1995년 12월 수입가격을 100으로 기준하며, 가격 총액 중 각 원자재별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다.

30개 조사대상 품목 중 유가가 9.26% 오른 것을 비롯해 EG(에틸렌글리콜), 니켈, 나프타, 금 등 거의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하락 품목은 소맥(-7.03%), 팜유(-0.80%) 등 2개뿐이었고 펄프 등 3개 품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가격지수 동향(2002.1- 2003.1)



P-X는 2002년 12월과 비교해 무려 68.12% 올라 2003년 1월 CIF 중국 수입가격 기준으로 800달러에 거래됐다. P-X는 원료가격 오름세에 중동 전쟁 프리미엄, 수급 타이트까지 겹치면서 공급대비 수요 증가로 2002년 1월 톤당 320달러에서 2002년 6월 475달러로 상승했으며, 2003년 1월까지 1년 동안 150% 상승한 셈이다.

나프타는 이라크 지역 긴장고조와 원유가격 인상, 정기보수로 인해 공급이 타이트한 반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수요는 지속되고 있어 중동 수입가격이 12월보다 8.28% 오른 303.42달러를 기록했다.

메탄올은 주요 공급처인 베네수엘라의 파업 장기화와 이라크 전쟁 가능성으로 미국, 유럽에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품귀현상을 빚어 사우디아라비아 수입가격 기준으로 전월보다 9.52% 오른 230달러를, 프로판은 4.59% 오른 342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EG는 원유, 벤젠 가격 상승에 힘입어 공급이 타이트하고 중동 지역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전월보다 26.0% 상승해 사우디아라비아 수입가격 기준으로 톤당 630달러에 이르렀다.

한편, 원당은 수급 타이트와 브라질 수출 감소, 저가격에 대한 반발로 12.06% 오름세를 보였으며, 니켈 11.58%, 천연고무 8.25%, 금 7.50% 등 25개 품목에서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조인경/화학저널 편집기자>